우리 복지관은 지금 16.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전통주를 문화 자산으로 잇는 '약현'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약현'에서 시니어 문화전승가가 전통주 시음회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 마을을 잇는 LINK'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하는 돌봄, 순환하는 나눔, 건강한 관계망, 성숙한 주민'을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전통주 문화플랫폼 약현'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복지관이 위치한 중림동의 옛 이름인 '약현(藥峴)'은 약초가 많이 나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약주(藥酒)가 빚어지던 곳으로 전해진다.

약현은 지역 어르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을 지역 문화 자산으로 환원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술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어르신들이 직접 전통주를 큐레이션하고 술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현의 중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복지관은 이들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넘어 '시니어 문화전승가'라고 부른다. 잊혀가는 우리 술에 담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건네는 문화적 주체의 의미를 담았다.

시니어 문화전승가들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매장 관리와 전통주 판매뿐 아니라 지역 주민, 인근 직장인, 관광객 등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방문객에게 우리 술 문화를 소개하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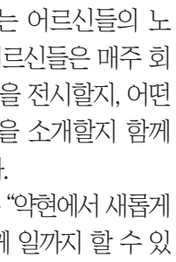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도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술의 바탕이 되는 누룩과 발효 원리부터 지역별 전통주의 특성, 향과 맛을 음미하며 즐기는 방법까지 전통주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방문객에게 술 한 병을 건네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빚었는지, 어떤 향과 맛을 지녔는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는 어르신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어르신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어떤 술을 전시할지, 어떤 이야기를 통해 술을 소개할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

김연화 어르신은 "약현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일까지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전과 다르게 항상 하루가 짧고 재밌다"고 소감을 전했다.

약현은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7월에는 전통주 기업 국순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조장 탐방과 판매 자문 등 전통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 참가와 백화점 팝업 스토어 입점도 계획 중이며, 어르신이 진행하는 전통주 원데이 클래스도 기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중림동 일대에서 빚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약산춘(藥山春)'을 직접 만들어 그 의미를 복원하고 조명하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흔히 노년 시간을 '여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약현에서 지역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주체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술 한 잔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약현의 문을 두드려 보자. 어르신을 돌봄 대상이 아닌 지역 문화 주체로 만날 수 있다.



조혜진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전략기획팀 대리

대만불교 포교일기 ⑧ 화합과 청정의 선거: 불광산의 종무위원회와 종장 선출

대중공의와 민주주의 결합 선거 시스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안팎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그래서 최근엔 불광산은 어떻게 선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필자에게 많이 질문하시곤 한다.

불광산의 창건주 성운 큰스님께서는 승가의 가장 큰 덕목을 '화합(和合)'과 '청정(淸淨)'으로 보셨다. 세속의 선거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권력욕과 금권, 편 가르기가 승단 내로 침투해 승가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계하셨다.

이에 성운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의 대중공의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결합해 불광산만의 독창적인 선거 시스템을 완성하셨다.

불광산의 종무위원 및 종장(宗長·주지) 선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중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광범위한 투표권이다. 불광산에서는 특정한 소수 권력층이나 대의원 몇몇이 지도부를 독점하지 않는다. 일정 계급 이상의 법계를 받은 출가 스님들 대부분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된다. 불학원(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은 대부분 투표권이 있다. 이는 교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부대중의 뜻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지도부가 전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출마(出馬)'가 없는 자격 명단 공개 방식이다.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 선거는 후보자가 스스로 "내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 일절 없다. 대신 계율과 법계, 인품, 행정 역량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선출 자격 대상자 명단'을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투표권을 가진 대중은 이 명단을 보고, 계파나 사리사욕이 아닌 오직 교단의 발전과 대중을 위해 헌신할 적임자를 각자의 소신껏 투표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나와 과열된 세 대결을 벌이거나 비방전을 펼칠 여지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일정 법계 이상 스님 대부분에 투표권
출마자 없이 종단이 자격 명단 공개해
만 65세 이상 제한해 세대교체 이끌어

셋째, '만 65세 연령 제한'을 통한 건강한 세대교체다. 불광산 규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종무위원이나 종장 선출 자격 명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연로한 원로 스님들이 교단의 행정 실무를 맡는 것을 방지하고 교단 리더십의 정체를 막기 위함이다. 원로 스님들은 장로원의 어른으로서 교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 감독과 조언을 담당하고, 교단을 이끄는 행정과 전법의 일선은 에너지가 넘치고 현대적 감각을 갖춘 중간 세대 스님들에게 내어주는 구조다. 이를 통해 교단은 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13명의 종무위원이 선출되고, 그 종무위원회의 장이 종장, 불광산의 주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성운 큰스님께서는 한창 활동하실 연세에 종장직을 내려놓고 후학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셨으며, 현재 불광산의 종무위원회 역시 젊고 능력 있는 스님들이 대중의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승가의 청정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대중의 뜻으로 추대하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불광산의 종무위원회 및 교단의 최고 리더인 종장 선출 제도가 한국불교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㉚ 법신의 광휘로 감싸인 부처님

오대산 월정사의 개산조는 신라의 대국통 자장 스님이다. 자장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중국 오대산을 순례했다. 이때 문수보살의 진신을 뵙고, "그대의 본국 동북방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 가서 뵙도록 하라"는 부촉을 받았다.

신라로 돌아온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 기슭에 띳집을 지었다. 이 띳집이 오늘날 월정사다. 이와 함께 오대산 자체가 문수보살의 현신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성지신앙'의 문이 열렸다.

성지신앙 즉 보살주처신앙의 근거는 〈화엄경〉 '보살주처품'이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청량산'이 중국 오대산으로 비정됐고, 자장 스님에 의해 신라 불교의 문법으로 번안돼 우리나라 강원도에 오대산이 탄생한 것이다. 오대산은 화엄의 산이다.

월정사의 주불인 '적광전'에는 통례와 다르게 비로자나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한국전쟁 때 불탄 칠불보전을 1968년에 다시 세워 대웅전이라 했으나, 화엄 종장 탄허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적광전으로 이름을 고쳤다. 다시 말해 석가모니불을 모신 집을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 법신의 광휘로 바꿔놓은 것이다. 탄허 화엄학의 산실다운 발상이다. 월정사 적광전 꽃살문, 진리의 당체로서 법신의 메타포다.

손영자 작가



월정사 적광전.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